

[2019년 3월] EU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EU 유기농식품 수입 분석보고서 출간

－ 출처 : 유럽위원회(2019.03.07.)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ood_farming_fisheries_farming/documents/market-brief-organic-imports-mar2019_en.pdf)

- 유럽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첫 EU 유기농식품 수입 분석보고서를 발표함
 - － 유럽연합은 2017년도부터 검증확인서(Col, Certificate of Inspection)제도를 통해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하물에 관하여 자동신고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이에 등록된 기록을 근거로 분석됨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유기농산물 수입은 32억 5,800만 톤에 달함
 - － 물량기준 가장 많은 수입을 나타낸 식품군으로는 신선· 건조 콩류 및 열대과일로써, 총 24.4%의 비중을 나타내며 가축의 사료· 비료로 주로 사용되는 깻묵의 수입이 총 10.8%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함
 - － 유럽연합은 총 115개국에서 유기농 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량기준 가장 많은 상품을 조달한 국가는 중국(12.7%)과 에콰도르(8.5%)임¹⁾²⁾
- 한편, 2018년 유럽연합의 유기농 농산물의 정확한 수입액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항목별 비중만 기재되어 있음
 - － 유럽연합의 가격기준 유기농식품의 수입 비중은 신선· 건조 콩류의 수입이 27.2%로 가장 높으며, 가공되지 않은 커피콩, 차와 마테의 수입이 9%로 2번째로 활발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소비되는 유기농식품 중 수입 의존도가

1) 한국은 반올림기준 0.0%의 비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총 115개 수입대상국 중 제 88위로 집계됨

2) 해당보고서에는 물량기준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나타낸 중국,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상위 10개국의 주요 수출항목이 분석되어 있으며, 상세 정보는 상기 링크로 확인 가능함

높은 특정식품군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식품으로는 올리브오일(20.7%), 밀가루(15.2%), 사탕무당 혹은 사탕수수(11.0%), 쌀(10.9%), 열대과일(9%) 등이 있음

- 2018년도 물량기준 對EU 유기농식품 수입대상국 및 상세 식품군별 수입 비중은 상기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2. 규정 (EU) 2019/90 발표 : 토마토, 가지에 관계되는 피리다벤 (Pyridaben)³⁾ 최대 잔류치 개정

- 출처:EUR-Lex(2019.03.20)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10.2903/j.efsa.2019.5636>)

- 네덜란드 화학약품 제조업체 Nissan chemical Europe S.A.S는 규정 (EC) No 396/2005에 의거, 관련당국⁴⁾에 토마토와 가지재배에 사용되는 피리다벤의 최대 잔류치(MRLs, maximum residue limits) 개정을 요청함
 - 네덜란드 관련당국은 규정 (EC) No 396/2005 제 8조항에 따라 이를 수렴하고, 유럽위원회를 거쳐 2018년도 11월 7일,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ecurity Agency)에 양도함
 - 유럽식품안전청은 해당신청을 상기 규정 제 10, 12조항과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91/414/EEC을 기준으로 평가함
- 유럽식품안전청은 연구를 통해, 요청된 피리다벤 최대잔류치⁵⁾과 관련한 토마토 가지의 반응이 인체의 신진대사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3) 피리다벤(Pyridaben) : 농작물에 쓰이는 살충제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지, 고추 등 17개 식품에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됨. 피리다벤은 기본적으로 '약독성'을 띄지만,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식약청 기준에 따라, 1kg 당 0.01mg임.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의 성인을 기준 하루 최대 0.3mg까지 섭취 가능함. 중앙일보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21853888>)

4) 원문표기 :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 the Netherlands(Evaluating Member States, EMS)

5) 기존 피리다벤 최대잔류치는 일반 섭취는 1일 1kg 당 0.01mg, 약품형(살충제 포함)섭취는 1kg 당 0.05mg로 허용됨. 지침 Directive 91/414/EEC에 기재

- 이에 따라, 토마토, 가지 재배에 사용되는 피리다벤은 신청서와 같이, 일반 섭취는 1일 0.05mg/kg, 약품형(살충제 포함) 섭취는 0.15mg/kg까지 확대 허용함
- 수정된 최대잔류수치는 가지, 토마토의 1차 농작물 재배 뿐 아니라, 활용된 가공식품 및 의약품(살충제 포함)에도 적용 가능함
- 유럽식품식약청의 소비자 유해성 상관관계와 관련한 구체적 평가 기록은 규정 (EU) 2019/90 부속서 B,C,D,C에 기재됨
- 해당 신규 규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임⁶⁾
- 규정 (EU) 2019/90에 기재된 피리다벤 약품형(살충제 포함) 최대 잔류치는 아래와 같음

코드	식품군	기존 최대잔류치 (mg/kg)	수정된 최대잔류치 (mg/kg)	코멘트/사유
231010	토마토	0.05	0.15	제안된 수치는 연구를 통해 소비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최대잔류치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함
321030	가지	0.05	0.15	

3. 관련자들을 위한 공지 :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품질통제체계와 EU 관련 법 및 규정

-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19.03.20.)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u_food_law_en.pdf)

- 유럽위원회는 지난 20일, 식품분야 종사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 법규 및 규정에 관한 공지’ 를 발표함
- 영국은 2017년도 3월 29일 리스본 조약의 제 50 조항을 따라, 2019년도 3월 30일을 기한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을, 이른바 ‘ 브렉시트’ 할

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54718523221&uri=CELEX:32019R0091>

것을 통보함

-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면, 영국은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닌 ‘ 제 3국’으로 간주되어 여타 비회원국가와 같은 법규 및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이와 같은 변화는 식품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영국식품에 EU 식품 법과 품질통제체계(quality schemes)⁸⁾가 적용될 예정임
- 해당 문서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와 함께 식품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관련법 및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됨
 - 1. 식품 라벨링과 정보, 건강 및 인식마크(Health and identification mark)⁹⁾
 - 2. 식품 성분, 식품 구성, 오염물질과 살충제 최대잔류치, 식품접촉물질¹⁰⁾
 - 3. 식품사업 종사자, 대표자 및 관련 허가보유자에 대한 요건, EU 허가신청을 위한 요건
 - 4. 식품 생산/위생규정, 유기농식품, 식품 보존 관련 규정
 - 5. 식품 품질 통계체계(quality schemes)에 관한 규정
- 브렉시트에 따른 상세 식품 규정 및 법규 변화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u_food_law_en.pdf

7) 한편, 영국 국무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3월 20일 유럽연합의회장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에게 영국의 브렉시트를 6월 말로 3개월 연장하는 기한조정 의뢰 서신을 제출함. 테레사 메이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터스크는 당일 의회를 수렴하고 유럽의회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의회에서는 23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라는 조건 아래, 5월 22일까지 기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승인함. 영국 하원은 지난 4월 1일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두 번째 의향투표(indicative vote)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임, Food Navigator, 매일경제 참고

8) 원산지표시제 (PDO,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지리적표시제(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음료 및 와인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 of spirit drinks and aromatised wines), 전통방식보장제(TSG,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포함

9)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현재 공동 식품 법을 실행중임

10)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 : 플라스틱 등 포장용기

II**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없음

III**통관문제 사례·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없음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9.01.01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